



12면

경략단절예방지역 확대 방안 모색

2020년 5월 18일 월요일 (음 4월 26일) 제253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지역사랑상품권 현장신청 오늘부터

14개 시군 현장 접수창구 설치, 대리인 신청 가능 세대주 출생년도 요일제 등 운영으로 혼잡 예방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현장 신청이 18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시작된다.

지난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4일 취약계층 16만3,678가구 754억원 현금 지급을 시작함에 이어 지난 11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도내 20만7,104가구 1,444억원을 지원했다.

18일부터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도민들은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

센터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세대주가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 본인 신분증, 세대주와 대리인 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현장이 혼잡할 경우를 대비하여 14개 시·군별로 '세대주 출생년도 요일제' 또는 '바우처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군별 지원 수단도 다르다. 선불카드만 지원하는 시·군은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이고, 장수군, 임실군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 나머지 4개

시·군은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모두 지원한다.

지역 제한에도 차이가 있다. 전주시, 완주군, 고창군은 선불카드의 경우는 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고, 나머지 시·군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접수를 위해 14개 시·군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창구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대면 접수가 불가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손소독제 비치, 대기장소 확보 등 사전 준비를 모두 마쳤다.

지난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신청도 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희망하는 도민은 기존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

대주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신청지역은 고령,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가 해당되며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신청접수 및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다른 가구가 있을 경우에는 요청이 제한된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시·군별로 신청방법, 지원수단 등이 달라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도와 14개 시·군에서 사전 준비에 철자를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 대법원, 전북도 '손 들어줘'

시외버스 운행 유지... 대한관광리무진 독점운행 '마침표'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의 시외버스 운행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유지하게 됐다.

지난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주)대한관광리무진 측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 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최근에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인천공항 중북노선의 인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4일 (주)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 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전북도가 최종 승소했다.

(주)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5년 10월 임실~전주~인천공항, 1월 6회 전북도의 시외버스 사업계 획변경 인가 처분이 부당하며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는 전북도가 승소하였으나, 2018년 9월 대법원은 원고의 공익적 기여도, 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북노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월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시외버스 인가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행정

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전북도가 승소 원고의 대법원 상고에 따라 전북도의 주관부서인 도로교통과는 법무행정과와 공조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인 (주)대한관광리무진의 상고 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상고를 기각,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주)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운행이 마침표를 찍게됨으로써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 운행이 지속될 수 있어 향후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전주, 임실 인근 도민들은 인천공항 이용시 교통편익이 보장되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의 절감 효과 등으로 교통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향후 (주)대한관광리무진의 증회운행 무효소송 등에서도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도민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혁신도시 등 도내 각 지역에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토닥토닥' ... 찾아가는 힐링공연

전주시립예술단은 오는 6월 말까지 코로나19로 시름에 빠진 시민들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위기극복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공연을 선보이는 '토닥토닥 힐링공연'을 진행한다. 시민은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열띤 공연을 벌이고 있다.

전북 20번째 확진자, 코로나 확산 가능성 희박

역학조사결과 이태원 감염추정

전북도는 도내 20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도내 공공보건연사 A씨의 역학조사결과 이태원 방문에 따른 감염으로 추정되며, A씨를 통한 추가확자와 확산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조사됐

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12일부터 원광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A씨(31, 남)는 5월 5일 이태원 방문력으로 자진신고해 검사를 실시할 당시에는 무증상이었고, 4월 중 대구 파견의료진으로 근무한 내력도 있어

감염원에 의문을 가진 상태였다.

그러나 입원 3일째인 14일 새벽부터 발열, 오한, 근육통 등 관련 증상이 나타나며, A씨의 접촉자 및 진료 방문 관련 감염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북도는 또 의료진으로 감염자를 방문한 후 주민들을 진료했으나 진료 시 A씨와 진료환자 대부분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했으며, QRS 조사에서도 추가 동선이 없음을 확인한

데 따라 접촉자로는 동료근무자 3명으로 한정하고 자가격리 조치했다.

아울러, 도는 A씨의 접촉자 및 진료환자(5.7~11일) 등 단순 접촉자를 포함 총 69명 대해 감염 예방 차원에서 확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도내 20번째 확진자인 A씨를 통한 코로나19 추가확진환자나 확산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진성 기자

전주영화제 '시네마프로젝트 2020' 선정작 공개

'세 자매' '정말 먼 곳' 등 3편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전주 시네마프로젝트 2020'으로 선정된 세 편의 영화를 공개했다.

지난 15일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세 자매'(감독 이승원), '정말 먼 곳'(감독 박근영), '에프터워터'(감독 다네 콜렌)로, 올해의 선정작들은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작품부터 개인의 삶과 내면을 연관 지어

특정 사회와 인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독립 극영화까지, 영화 예술의 외연을 넓혀줄 기대작들이다.

먼저 극과 극의 성격을 가진 세 자매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묻는 이승원 감독의 '세 자매'는 파격적인 인물 묘사와 상황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감독 특유의 연출력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세 자매 역할을 맡은 배우 문소리, 김선영, 장윤주의 연기가 빛나는 작품이다.

/장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